

# 불교환경연대 인재육성 나서

## 대학생 5~6명 선발 장학금 지급

불교인재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가운데 불교환경연대가 불교환경운동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 나서 눈길을 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6월 7일 “불교환경과 생태문제에 관심이 있는 유능한 인재 선발, 후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젊고 유능한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불교계의 현실을 극복하고, 인재발사를 불교계 각 분야로 보다 확산시킨다는 취지.

불교환경연대는 환경·생태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5~6명을 매년 선발해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하고, 이들의 현장 인턴활동과 해외 NGO 현장 연수, 비상근 실무팀 참여 등의 방법으로 불교환경운동에 결합시킬

계획이다. 후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년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불교와 환경, 경전에 나타난 환경사상, 푸른 사찰 가꾸기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약속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자기소개서, 연구계획서, 대학원 재학 및 성적 증명서, 지도교수 추천서 등이며, 6~8월 올해 첫 수혜자가 선정된다. 집행위원장 진원 스님(내소사 주지)은 “그동안 사회참여활동을 펼쳐 오면서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느껴왔다”며 “불교가 사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의미 있는 불사라는 각으로 인재육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02)720-1654 www.budaeco.org  
박병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 지자체, 템플스테이 적극 활용

### 전남도청, 여행사와 연계 관광상품 개발

지자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남도청은 전문여행사인 하나강산(대표 박정기)과 연계해 대원사를 시작으로 불화사, 화암사 등 지역 템플스테이 사찰을 이용한 관광 상품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청은 양복고통과 템플스테이,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지역 관광사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북도청과도 컨소시엄을 형성, 도내 관광관련 자문 및 행사를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청도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경기관광공사와 알와이(Alway) 투어, 엑스터스 투어와 여행상품 개발을 진행중이며, 충남도청도 △관광 안내 홍보물 제작 배부 △사찰 안내 표지판 설치 지원 등을 통해 템플스테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이고은씨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지자체와 꾸준한 연관관계를 맺어 템플스테이 사업이 지역발전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피력해 각종 사업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 수립장, 상조서비스 시작

수목장 전문업체인 수립장(대표 정다선)은 6월 8일 상조서비스 대행업체인 (주)두레문화 서울사무소를 서초구 반포동에 마련, 문을 열었다. 두레문화는 대구에 본사를 두고 경조행사를 의뢰받아 처리해주는 업체다.

수립장 법등행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은혜사 등의 수목장은 그동안 불자들에게 국한된 면이 강했는데, 이번 두레문화 상조서비스와 함께 일을 하게 됨으로써 타종교인 또는 무종교인에게까지 수목장을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친환경적인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것은 물론, 부처님 법을 알리는 기회로 삼고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병영 기자

## “월드컵 응원 절에서 함께해요”

6월 9일 공식 개막한 2006월드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사찰과 복지관등 단체 응원을 준비하고 있다.

6월 13일 밤 10시 열리는 한국과 토고 경기에 맞춰 진행되는 단체응원은 신나는 풍물과 댄스 공연 등이 곁들여져 흥을 돋운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담)는 13일 밤 10시부터 경내에서 풍물 길놀이 시작해 응원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기 시작 직전에는 400여 명이 보우당에 모여 응원 연습을 하며 경기를 맞는다. 앞서 봉은사는 11일 오전 10시 봉은사 법당무

에서 불자국가대표인 이운재?김용대 선수의 가족을 초청해 ‘2006월드컵 승리 발원 특별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 조계사 봉은사 단체응원 준비 문화 공연·특별 경품 제공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도 13일 저녁 대웅전 앞마당에 특별무대를 설치해 단체응원을 한다. 조계사는 500여명의 응원동참자 중 이날 경기결과를 맞은 사람에게 특별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주 영평사(주지 환성)는 13일

저녁 대웅전 앞 잔디마당에서 템플스테이 참가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단체응원을 진행한다.

각종 문화행사와 함께하는 응원전도 마련했다. 서울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공상길)은 13일 저녁 8시부터 영등포 문래공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부 건강가족문화마당, 2부 가족문화공연, 3부 월드컵 응원연습 및 경기관람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응원은 신효범, 하리수 등 대종가수들의 공연과 청소년 댄스 공연, 단체 꼭짓점 댄스 등으로 꾸며진다.

유철주 기자

## 독일법당서 대~한민국!

### 한마음선원 독일 지원 꼭짓점 댄스 배우기 열풍

2006 독일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독일 거주 한국불자들이 월드컵 분위기를 한껏 고조했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지원장 해진)은 월드컵 응원을 ‘오 필승 코리아’에 맞추어 추는 꼭짓점 댄스 배우기에 빠졌다(사진).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과 독일의 선전을 기원하며 어린이들이



선보인 꼭짓점 댄스는 신도들의 대한열정을 받았다.

해진 스님은 “독일신도들의 어질픈 몸동작이 주위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며 “독일 신도는 독일을 응원하고 한국 신도는 한국을 응원하지만 스포츠를 통해 하나되는 마음만은 같다”

고 소개했다. 한편 독일지원 어린이부 승호·승일 형제는 월드컵 어린이 환영사절단에 선발돼 볼프강 키어블러 내부부장관, 조셉 블래터 FIFA 회장 등 앞에서 환영 메시지를 노래하기도 했다.

독일 뒤셀도르프-임영시 통신원 자세한 내용은 buddhanews.com



### KTX 여승무원 노조 박종철인권상 수상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다 정리해고된 철도노조 KTX 여승무원들에게 박종철 열사의 뜻을 기린 인권상 수여(사진). 불교인권위원회는 파업 100일 하루전인 7일 KTX 여승무원 조합원들에게 제4회 박종철인권상을 수여했다. 박병영 기자

## 사립교, 종교강요 개선의지 실종

최근 종교강요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종교교육 지침을 중·고교에 하달했던 서울시교육청이 개신교계의 반발로 수위를 대폭 낮춘 지침을 내려 보내겠다고 약속하는 흔적이 빛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7차 교육과정 원칙에 따라 지난 4월 일선 중·고교에 △특별활동시 특정종교 교육 금지 △종교활동 경진대회 금지 △종교로 인한 처벌 금지 △종교 관련 상담창구 신설 운영 등 15가지 유의사항을 담은 장학지도계획을 하달했다. 그

러나 “사실상 종교교육을 원천봉쇄한 조치”라며 서울시교육청을 향한 방문하는 등 개신교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유의사항을 수정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종교사학들의 종교강요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면서 “불교계를 비롯해 학부모단체 등이 교육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문제해결 방법”이라고 밝혔다.

박병영 기자

## 불교철학 교과서 나온다

### 불교교육연, 총회서 결의...편찬위 구성

불교의 가르침과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철학교과서가 나온다.

불교교육연(회장 홍기삼) 이하 불교교육연은 6월 3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54차 정기총회를 열고 중고등학생용 철학교과서를 개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편찬위원회를 구성했다.

편찬위원회는 동국대 조용길 불교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에는 동국대 김종욱 교수, 편집위원에는 김남일, 김형중, 김홍섭, 유동호 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간사는 동국대 정성준 박사과 동대부

속여중 권진영 교수가 맡는다.

권진영 간사는 “불교가 기본이지만 동서철학을 전공한 학자를 필진으로 섭외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며 “2007년 8월 30일 교육부에 교과서 사용인정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교교육연은 이날 총회에서 나주 세지중학교를 25번째 회원으로 받아들였으며, 동대부고 박정욱 교장과 은석초등학교 구연식 교장이 각각 부회장과 감사로 선출됐다.

유철주 기자

## “밝은 웃음 되찾았어요”

### 이리크 폭탄피해 카우서양 치료마치고 귀국

“절망에 빠졌던 저희 가족에게 희망을 준 한국과 한 달 간 가까이서 돌봐준 한국 불교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리크 전쟁 중 바그다드 폭탄테러 현장에서 전신화상을 입은 카우서 아델 후티(49)가 한국에서 재활 수술을 마치고 6월 13일 고향으로 돌아갔다. 카우서양의 아버지 아델 하미드(40)씨는 “떨어

이 수술이 무사히 끝나 너무

당 교수의 소견에 따라 조기 출국하게 됐다. 카우서양은 입원 기간 동안 입술과 턱, 귀 밑 등 내부위의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KCRP 여성위원회의 ‘극경을 초월한 모성애’ 활동에 참가해 카우서양을 보살피고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 봉사자들은 6월 5일 카우서양의 숙소인 서울 서대문 비비앙 호텔에서 조출한

기쁘다”며 “종교를 떠나 낯선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백도웅, 이하 KCRP)의 ‘한·이리크 평화프로젝트’ 일환으로 한국에서 치료를 받게 된 카우서양은 애초 3개월의 치료 일정으로 5월 7일 입국했다. 하지만 수술 결과가 양호하고 현재 적응하고 있는 입술 교정기도 6개월 이후

환송회를 열고 웃고 가랑, 신발 등을 선물했다. 한 달간 통역과 간호, 생활 지원 등을 도운 9명의 봉사자들은 한결같이 “카우서가 밝은 웃음을 되찾아 기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김인숙 원장은 “어렵게 수술을 받은 만큼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겠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 문화사업단, 불교테마여행 안성지역 석불문화재 탐방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정보화사업팀은 6월 17~18일 안성지역의 석불 및 석조문화재를 주제로 1차 불교문화테마여행을 떠난다. 신영훈 한국문화원장의 설명으로

이뤄지는 이번 테마여행에서는 외국어 신문사 저널리스트, 여행전문 기자, 한국관광공사 7개 국어 사이트 담당자들이 참가한다. 이들의 참가답사후기는 7개 국어로 번역돼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및 외국어 신문에 올려질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 백일 지장기도 및 고승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본사에서서는 자성의 빛을 밝히는 지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지옥이 다 빈 후에야 성불하겠다는 지장보살님의 대자대비한 원력의 힘을 빌어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참회하는 실천행으로 업장의 소멸되어 거듭나는 참다운 모습을 스스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백일 기도 동안 큰스님의 법문을 듣는 법석을 마련합니다. 원력 충만한 청정한 법문을 통해 어두운 마음의 덩어리들이 사라지고 맑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여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고, 나와 더불어 인연 잇는 선망 부모 형제, 유주무주고혼의 영혼들이 천도되는 기도 성취의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입재 : 6월 13일(음 5. 18) 회향 9월 22일(음 8. 1) 총 11회 • 시간 : 오전 10시 ~ • 장소 : 설법전

입재	조재	2재	3재	4재	5재	6재	7재	8재	9재	회향
6월 13일 (火: 5월 18일) 자유대선사 범어사 조실	6월 23일 (金: 5월 28일) 무진장 큰스님 前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7월 3일 (月: 6월 8일) 암도 큰스님 前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7월 13일 (木: 6월 18일) 성수 큰스님 황대선원 조실	7월 23일 (日: 6월 28일) 백운 큰스님 미륵사 주지	8월 2일 (水: 7월 9일) 종진 큰스님 해인총림 울주	8월 12일 (土: 7월 19일) 정관 큰스님 영주암 회주	8월 22일 (火: 7월 29일) 해정 큰스님 범주사 회주	9월 1일 (金: 7월 9일) 월주 큰스님 前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9월 11일 (月: 7월 19일) 천운 큰스님 대흥사 조실	9월 22일 (金: 8월 1일) 고산 큰스님 쌍계사 조실

##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선찰대본산 금청산 梵魚寺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Tel. 051)508-3122~7 Fax. 051)508-3229 www.beomeosa.co.kr